

(주)제일농장 회사정리 절차 개시명령 신청

- 신청 이유**
1. 갱생시키지 않으면 모든 투자와 축적된 기술이 헛된 것이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
 2. 자산처분시 담보채권자 채권 회수할 수 없어

(주)제일농장(대표 윤도진)은 신청인 대리인 이영수변호사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내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라는 재판을 구했다.

이영수변호사는 신청이유를 통해 사전본인회사(제일농장)는 정부의 축산장려시책에 따라 오래전부터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의 현대적 대기업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개인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는 동안 오로지 축산입국의 일념하에 방계회사로 사료제조회사를 계열화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육가공공장과 부속연구소를 설립 이상적인 대기업을 만들어 육류의 저렴한 가격에 의한 공급과 농민

의 소득증대를 기하여 왔으며 이 모든 것이 현 경영주의 집념에 의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종업원복지를 위하여 건설한 사원아파트와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갖춘 최신식시설과 기계화의 육가공 공장 및 기술개발등에 많은 자금이 투입됐지만 불행히도 예측이 빚나가 돈육가의 폭락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악의 불황도 이제는 점차 걸쳐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훌륭한 시설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므로 정리절차만 개시된다면 회사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사전본인 회사를 갱생시키지 않으면 ▶ 지금까지의 모든 투자와 축적된 기술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 축산업의 현대적 기업화가 좌절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고 ▶ 계약농가의 부업 내지 소규모양돈업이 큰 타격을 입고 ▶ 사전본인 회사의 종업원만도 300명이고 자매회사인 제일축산 그리고 연구소의 고급인력과 훈련된 기술자들이 모두 실직할 것이고 종업원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자기공장을 지켜가며 오로지 여기에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로서 위탁농장과 함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데다 회사가 파산되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실제처분가격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사육되고 있는 돼지도 유통과정상 일시 처분이 곤란한 점에 비추어 극히 일부의 담보권자를 제외하고는 제2금융권을 비롯하여 수많은 무담보채권자들이 전연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윤도진씨는 지난 63년 400수의 양계로 시작하여 67년엔 제일 축산협동사료공장을 설립하였고 72년엔 용인제일농장 75년엔 이천제일농장을 설

립 경영해오면서 83년 10월 현재 용인 이천의 제일농장과 6개소의 위탁사육장에서 30,000 여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연간 60,000여두의 육돈을 생산하는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또 80년에 제일축산협동사료공업사를 이천으로 이전 확장하여 중앙 통제의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1일 230톤 생산능력의 양돈배합사료공장을 준공하여 자체농장 양돈사료로 자급해왔고 같은해에 제일축산사료공장내에 한국축산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축산기술개발연구와 축산 학술지를 발간해오다 81년 제일축산사료공업사(주) 제일축산으로 법인전환하였고 82년에는 이천제일농장을 (주)제일농장으로 법인전환 하였다. 한편 83년 6월에는 연건평 2137평의 최신식 자동시설을 갖춘 육가공장을 건축하고 1일 8시간 기준하여 돼지 500~1000두 소 50~100두 도살처리능력과 5톤의 정육을 급속냉동시킬 수 있으며 600톤(20,000 두)의 육류를 냉동 저장할 수 있는 대단위 냉동냉장시설을 갖추는 한편 21만평의 초지를 조성하여 대단위의 삼성목장을 건립하였고 유통개선과 판로확보를 위해 16개의 대리점과 54개의 특약점등 판매망을 갖추는 등 (주)제일농장 육가공공장 삼성목장 용인제일농장에 투입된 자금은 총 15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종업원만도 총 344명이나 되어 약25억원을 투입하여 이천과 음성에 160 세대의 사원아파트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주)제일축산과 (주)제일농장에서 혼연일치가 되어 육가공공장건설과 사원아파트등의 건설에 약100억원을 무리하게 시설투자했고 돈육가격이 15만원선에서 7만원선으로 폭락하고 국제곡물가격의 일부양등으로 수지악화등 자금압박을 받게되어 1984년 1월 부도를 내게 되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판사 김현채)은 본회에 ▶ (주)제일농장(대표 윤도진)의 경쟁가망성에 대한 의견 ▶ 사건본인회사가 도산하는 경

우 업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건본인회사의 시설규모 기술축적및 부설 한국축산과학연구소의 역할에 비추어 식생활개선 및 아시안 게임 올림픽게임등을 앞둔 돈육소비추세에 기여할 기여도 ▶ 사건본인회사가 갖고 있는 최신식 육가공공장시설이 우리나라의 타 유사업체의 것보다 뛰어난 최신식 시설인 여부를 4월16일까지 회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사건 84과246 회사정리공문을 접수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제일농장(대표 윤도진)은 일생을 한국축산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직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성실하고 온후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주)제일농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굴지의 대규모 사육 양돈장인 바 과학적 성격적 사육관리운영으로 육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유통구조까지를 개선함으로써 재래적 유통형태에서 오는 부당한 마진을 배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육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산 육처리 육가공제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사료공장시설의 확장 한국축산과학연구소의 설치 육가공공장의 설립등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류 유통구조개선 및 국민식생활개선을 위해 촉진제적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과잉투자에 걸친 83년 6월 이후의 양돈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나 양돈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므로 경영도 점차 개선 호전되어 갈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발전은 국민소득을 향상케하여 국민식생활개선을 더욱 촉진하여 돈육수요는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인 바 더욱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세계각국에서

많은 임원선수단과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진한국의 이미지부각과 돈육의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농장과 같은 업체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일농장 계열회사의 육가공공장 시설이 동업의 타 업체의 것보다 뛰어난 최신식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기자재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단정적인 확답을 할 수 없으나 업계의 견해나 여론에 의하면 최신식시설이라는 점은 사실인것 같아 그렇게 믿으며 또 확신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복합영농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는 양돈경영안정과 영세부업양돈농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계열화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주)제일농장이 현재와 같은 경영난에서 구제되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능력이 우수한 육돈용 자돈의 공급이 가능하고 사양관리 기

술지도를 위해서는 축산과학 연구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공장과 육가공공장 및 돈육의 판매망등 다른 어느 업체보다도 우수하고 유리한 계열생산주체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세한 부업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농수축산신보(5월14일)에 따르면 (주)제일농장은 부도이후 지난 4월 윤도진씨 부인인 박계옥여사가 새로 대표이사에 선임되고 남은 임직원 200여명이 합심하여 재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7,000 여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고 사료공장 가동은 중단한 상태이나 육가공공장은 1일 200여두의 돼지를 도살가공처리하여 자체 직매장을 통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등 판매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태여 무슨글을 보내달라고 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

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와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실패담·임상수기·건의사항·양돈기술상담·세무상담·지회소식 등 어떤 내용이던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 쓸 시간이 없으시다면 본지 기자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혹자는 공식적인 원고청탁이 없어서 원고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쪼록 앞장 양돈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지불하겠습니다.